

예수님과 함께하는 밥상(2)

2014년 12월 14일

공동체라는 이름의 함께하는 밥상(누가복음 7:36~50)

여러분에게 사람들과 함께 했던 최악/최고의 밥상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밥상 두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했던 밥상은 가장 최악의 기억과 가장 최고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최악의 밥상은 군대있을 때의 밥상입니다. 1989년 정월 대보름이었고 맛있는 오곡밥과 나물, 전까지 있던 밥상이었지만 그후에 곧 있을 집합과 구타로 결코 잊을 수 없는 최악의 밥상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밥상은 처음으로 요세미티 해프돔을 올라갔다가 거의 20여명이나 되는 학생들과 산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겨우겨우 내려왔을 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선배들이 후배들을 챙겨 먹이던 산속의 불고기와 김치, 밥뿐이던 밥상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로서 함께 했던 밥상은 그 두 밥상 사이에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밥상은 우리에게 절망과 두려움, 설움의 기억일수도 있고 기쁨과 즐거움, 환대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밥상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공동체가 함께 했던 밥상을 떠올리자니 3가지 밥상이 생각납니다. 가장 먼저는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동안 함께 했던 밥상입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슬픔과 절망과 소망이 있던 밥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갈릴리 호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차려주신 밥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밥상의 모습도 봅니다.

이런 밥상들과 더불어 오늘 본문과 함께 공동체라는 이름의 밥상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밥상은 우리에게 공동체로서 함께 하는 밥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하는 밥상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44-46 절)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고쳐주셨고 또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즘으로 말하면 유명한 셀레브리티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가운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이 집은 지난 주 설교에서 우리가 들었던 세리 레위의 집과 같이 아무나(죄인들..) 들어올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그 식사초대는 요즘으로 말하면 RSVP 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식사자리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판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36 절)

실제로는 앉으셨다기 보다는 비스듬히 누우신 것이 맞습니다. 그게 당시 중동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 자세로 누워서 식사도 하며 하인들은 계속해서 음식을 내왔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과 식사중이셨고 그 때 한 여인이 식사하시던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37 절에 따르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동네 전체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있었나 봅니다.

동네 전체가 그 여인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려 주는 단서는 39 절에도 있습니다. 여인의 행동을 본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네, 그 여자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좀더 솔직히는 그 여자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매춘부출신의 여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여인의 행동이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머리를 늘어뜨리는 것은 침실에서나 하는 행동입니다.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남자 고객으로 대하는 암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그 행동이 참 부적절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장면이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34 절에서 누가가 말한 것처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셨던 예수님은 그 죄인이었던 여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불리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밥상의 호스트였던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은 예수님과 정반대였습니다. 그 여인이 함께하는 것을 원치않았습니다. 여인과 눈길을 마주치거나 한마디 대화라도 나누게 되면 마치 자기의 신분이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 가급적이면 그 여인을 피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조용히 여인을 내보내려 했을지 모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들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하나는 ‘저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인데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 여인은 그저 처리해야 할 문젯거리일 따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던져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아니, 좀더 솔직하게는 우리에게도 본문의 여인과 같이 불편한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을 대하는 우리의 속마음은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건 우리의 속마음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결국 누구와 함께 밥상을 마주 앉느냐는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좀더 솔직히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함께하는 밥상은 말 그대로 “가까이 앉아서 먹는 것”이고 함께 먹을 때 우리의 내면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37-38 절)

가까이 앉아서 먹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가까이 앉아서 먹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교만을 숨길 수 없는 자리입니다. 밥상을 거절하고 따로 먹던가, 먹지 않았다면 모를까, 이왕 앉은 밥상에서 표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불편함을 숨기고 밥만 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 밥만 먹고 대화가 없다는 것은 이미 불편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많은 여인은 예수님 가까이로 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가까이 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정말로 불편했던 것은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 가까이 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여인이 비록 초대도 없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계시던 메인 테이블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적당히 밥상에서 먹다가 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집들, 특히나 사람을 초대할 만큼 규모의 집들은 마치 우리식으로 따지면 사랑채와 같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외부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이죠. 거기서 오늘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초대받지 않았던 여인이라도 적절한 행동을 했더라면 그냥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보기에 문제는 그 여인이 바로 이 식탁에, 밥상에, 잔치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너무 예수님 가까이 다가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스타벅스에 자주 갑니다. 커피맛이 훌륭하지는 않아도 찾아가기도 편하고 일정한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하기 때문에 갑니다. 최근에 가보니 무선전화기 charger 까지 마련해 놓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도록 해 놓았더군요. 간혹 선물로 스타벅스 카드를 받기 때문에도 가게 됩니다.

관찰을 좋아하는 제 아내가 스타벅스에 앉아 생각을 하더니(메릴랜드에서) 스타벅스의 서비스를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친절한 무관심.” 커피를 만들어주기까지는 스타벅스는

친절합니다. 내가 카운터로 가서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요청할 때 대개 친절합니다. 하지만 나의 테이블로 돌아와 책을 읽어나 웹서핑을 하거나 뭘 하던 종업원들은 무관심합니다. 보통 레스토랑처럼 종업원들이 계속 와서 필요한 것이 없냐고 묻지 않고 왜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느냐고 눈치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무관심합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가 바로 이런 친절한 무관심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온 누군가에게 친절합니다. 주일의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상의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필요한 것이 제공되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그후에는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이 끝나고 교회문을 나가서 주차장으로 향하는 순간부터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굳이 찾아와 무엇인가 요청하기 전에는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무관심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친절했지만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자고 친절을 베풀었지만 정작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손님이 오면 당연히 준비해서 내와야 할 발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았고 환대의 표시인 입을 맞추거나 기름을 내오지도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여인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관심을 보였습니다. 굳이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의 가격이 정말로 나드 향유를 썼다면 당시 보통 사람의 일년 월급에 해당하는 300 데나리온이라는 것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인이 보인 행동은 관심과 사랑, 환대였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이 식사하시던 밥상 가까이 간 것은 용기였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은 물리치지 않고 받아주셨고 또 함께 먹으셨을 것입니다.

식탁은, 밥상은 무관심이 환대와 사랑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밥상은 이상(Ideal)이 현실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상적인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 환대해 주고 사랑해 주는 공동체를 원합니다. 본회퍼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우리가 실현해야 할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현실,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는 저너머에 있는,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바로 밥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친절하고 매끈한 무관심이 거칠고 투박하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바뀌는 장소는 바로 식탁입니다.

잠언 15:17 에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소박한 삶으로 유명한 스캇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의 자서전에 보면(소박한 밥상), 헬렌 니어링은 요리를 어렵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물을 붓고 채소를 넣고 끓인다, 사람이 예정에 없이 더 오면 물을 더 붓고 끓인다가 그녀의 레서피였습니다. 헬렌 니어링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저 소박한 밥상에서, 얼굴을 대하고 가까이 마주 앉아 있는 것에서 현실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까이 앉아 밥상을 대하고 얼굴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 속의 내면의 민낯을 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교만, 이기심, 차별을 극복하는 자리가 됩니다.

결국,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 가까이 가서 향유를 부을 시간도 없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게 한 것은 바로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 장에서도 아버지를 거역하고 멀리떠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아주는 아버지의 용납과 은혜, 사랑의 모습은 잔치, 곧 밥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도 함께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밥상의 공동체였습니다. 신약성경의 여러 예들을 말하지 않더라도 교회는 밥상의

공동체였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과 마주한 밥상앞에서 더 이상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베푸는 밥상, 서로가 함께 마주한 밥상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한 공동체가 되어 갑니다.

찰스 프레이저의 원작 소설인 “cold mountain”에 근거해서 만든 영화인 ‘콜드 마운틴’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커다란 나무 아래 밥상이 펼쳐집니다. 영화에 등장한 여러 인물이 그 밥상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먼저 루비(르네 질위거)가 나옵니다. 거친 삶을 살아온 루비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의 아버지는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루비옆에는 그녀의 남편과 아이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루비의 아버지도 있는데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 아버지는 루비와 화해했습니다. 민병대에게 남편과 아들이 죽음을 당하고 실어증에 걸린, 켈리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에이다(니콜 키드만)도 있습니다. 그는 영화내내 인만(주드 로)과 그리워하다가 결국에는 인만이 돌아와 아주 짧은 사랑을 나누지만 결국 그 남자는 살해를 당합니다.

그렇게 상처입은 사람들이 모여 큰 가족을 이루고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밥상의 공동체는 바로 그 나무아래 둘러앉은 밥상과 같습니다.

상처받고 깨어진 사람들이 밥상에 둘러앉아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눕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영화 ‘콜드 마운틴’의 마지막 밥상에는 등장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에이다가 인만과 결혼하고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가지게 된 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Grace 입니다.